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9

글.
조인준 KBS 기술연구소 차장

2016년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2017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 무심하다가도 달력이 바뀌면 갑자기 정신이 번뜩하는 것은 이룬 것 없이 마냥 늘어가는 나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과 삶이 남긴 것들의 수를 헤아려 마치 '손익계산서'처럼 '인생실적'을 따져보는 습관은 남은 생에 대한 '보험총액'을 어림잡아 보고 싶은 심정도 한몫한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 유무를 따져보기보다는 '보험총액'의 다다익선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은 지금의 시대는 희망이 불안을 이겨내기엔 힘이 모자라 보이는 착잡함 때문이겠죠. 평범한 어른으로 평범하게 남은 날들을 하릴없이 채우는 기분은 겨울 해 질 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에 취하다 보면 알קות 기억에 덜미를 잡혀 어린 시절 어느 단편의 한 장면으로 끌려가곤 합니다. 그리고 '인생무상'에 관해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지는 지금... 문득 어릴 적 어느 새해 아침 집에 퍼지던 떡국 냄새가 탐탁지 않았던 기억으로 생각이 하드랜딩을 해버립니다.

C군은 어릴 적 떡국이 참 맛있는 음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떡국에는 손도 안 대고 나물과 고추장에 밥을 비벼 물김치로 한 그릇 뚝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년 전부터 떡국이 그럭저럭 맛이 괜찮은 음식 같아져서 지금은 무난히 잘 먹고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시절에는 그리도 맛이 없던 떡국이 흰머리, 잡티, 잔주름이 많아지는 얼굴이 안타까운 시절이 되니 조금 맛있어지는 것도 아이러니 같습니다. 입맛이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식재료와 식품에 관련된 유통 및 가공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래떡이 맛있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떡국에 대한 아름답지 못했던 기억도 그것이 어린 시절의 것이라면 따뜻한 파스텔톤으로 채색이 된다는 것이 포근하기도, 또 아릿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축복'이라는 희망으로 다시 힘을 내야겠죠? 그럼 C군의 영단어 어원탐구,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단어에 관해 이야기를 물고 가는 진부한 방식에 매번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참신하고 신선한 방법을 고안할 때까지 조금만 인내해주세요.

Benediction

어원 : 라틴어 bene (well) +

라틴어 dicere (say, speak)

남미의 이름 중에 '베네딕토(Benedicto)'라는 이름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딕토'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가 많은 남미에서 종교적 의미가 담긴 이름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단어 명사 'Benediction'은 남미 이름 '베네딕토'와 같은 어원에서 뻗어 나왔고, 의미 또한 '베네딕토'와 비슷한 '**축복**'입니다. 'Benediction'의 어원은 'well'의 뜻을 가진 라틴

어 'bene'와 'say, speak'의 뜻을 가지는 라틴어 'dicere'입니다. 어원 자체의 의미는 '뭔가 좋게 말해준 것'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 '좋게 말해 주는 것'으로 '축복'은 더 복잡하게 연관 짓지 않아도 될 만큼 쉽게 의미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틴어 'dicere(say, speak)'를 중심으로 다른 영단어들의 뜻을 어원과 연관지어보겠습니다.

Malediction

어원 : 라틴어 mal- (badly) +

라틴어 dicere (say, speak)

'축복'에 해당하는 'Benediction'이 있다면 당연히 '**저주**'나 '**악담**'에 해당하는 단어도 영어에 있겠죠? 이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바로 'Malediction'입니다. 어원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Malediction'의 어원은 'badly'의 뜻을 가진 라틴어 접두사 'mal-'과 라틴어 'dicere(say, speak)'입니다. 어원에서 곧바로 뜻이 나오죠? 어원의 뜻이 '무언가 나쁘게 말하는 것' 정도가 되어 '저주'나 '악담'과 바로 의미가 연결됩니다.

Contradiction

어원 : 라틴어 Contra (against) +

라틴어 dicere (say, speak)

옛날 중국 초나라에서 어느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자신이 파는 창은 세상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으며, 자신이 파는 방패는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있다고 열띤 '영업'을 하는 중에 듣던 이 중 한 명이 '그럼 당신이 파는 창으로 당신이 파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 상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矛)과 방패(盾)를 나타낸 말이 모순(矛盾)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순**'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Contradiction'입니다. 'Contradiction'의 어원은 'against'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contra'와 앞서 설명한 'dicere(say, speak)'입니다. 어원 그대로를 풀어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약간 양념을 쳐서 좀 더 매끄럽게 어원과 단어의 뜻을 연결해보면 '어떤 복수의 사실들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들이 서로 모순이 된다고 하므로 'Contradiction'의 어원으로부터 그 뜻인 '모순'이 무리 없이 유도됩니다.

Valediction

어원 : 라틴어 vale (goodbye) +

라틴어 dicere (say, speak)

영단어에서 '**작별**이나 **고별**' 또는 '**작별**이나 **고별의 말**'을 뜻하는 단어 중에 'Vale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ediction'의 어원은 'goodbye'를 뜻하는 라틴어 'vale'과 라틴어 'dicere(say, speak)'입니다. 어원 그 자체로 '작별'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 영단어로서 갖는 뜻인 '작별(사), 고별(사)'이 별다른 노력 없이 라틴어 어원과 쉽게 연결됩니다.

Predict

어원 : 라틴어 Pre- (before) +

라틴어 dicere (say, speak)

영단어 동사 'Predict'의 의미는 '**~을 예언하다, 예측하다**'입니다. 어원은 'before'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pre-'와 'dicere(say, speak)'입니다. 어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미리 말한다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므로 'Predict'의 의미인 '**~을 예언하다, 예측하다**'를 어원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Interdict

어원 : 라틴어 Inter- (between) +
라틴어 dicere (say, speak)

영단어 'interdict'는 명사로는 '금지명령, 제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로는 '∼을 금지하다, 저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원은 'between'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inter-'와 'dicere(say, speak)'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어원과 현재의 의미가 매우 명확했던 영단어들과 달리 'Interdict'의 경우는 어원의 일차적 해석으로는 현재의 의미와 어원을 연결하는 것이 자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건전한 추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C군의 건전한 추리가 얼마나 건전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무리가 없어 보이도록 어원을 이차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주체가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위를 추구하는 중간에 끼어들어(between)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하면, 이는 그 행위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의 심상을 강하게(?) 발산한다고 C군은 생각합니다. 고로,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저지하는 것'과 통할 수 있다고 C군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전한 추리를 기반으로 'interdict'의 어원으로부터 '금지명령, 제지' 또는 '∼을 금지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이 매우 그럴듯하게 유도되었다고 C군은 믿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ondition

어원 : 라틴어 Con- (together) +
라틴어 dicere (say, speak)

'Condition'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서 어원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의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어원풀이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추가해보았습니다. 'Condition'의 어원은 'together'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con-'과 'dicere(say, speak)'입니다. 우리가 'Condi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흔히 '몸 상태'를 이룰 때가 많지만, 영어에서는 '상황'의 의미가 더 널리 쓰이고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몸 상태'라는 뜻도 '상황'에서 가지치기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중점을 두어 어원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원 자체의 의미는 '무언가 같이 말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원이 뜻하는 '무언가 같이 말하는 것'과 현재의 뜻인 '상황'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나 건전한 추리가 필요한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만, C군과 함께라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우 매우 건전하게 추리하여 영단어의 어원과 현재의 뜻을 무리 없이 이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설이라고 100% 확신하면 안 되는 추리이지만, 최소한 영단어를 어원과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충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같이 말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주변의 상황이 당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같이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원과 현재의 뜻이 어느 정도 무리가 크지 않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영단어 어원풀이를 하다 보면 너무 자명한 것들은 영단어를 외우기에는 편하고 좋지만, 어원풀이 자체의 재미는 덜한 것 같습니다. 'condition'이나 'interdict'같이 건전한 추리(?)가 필요한 단어들의 어원풀이가 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Edict

어원 : 라틴어 Ex- (out) +

라틴어 dicere (say, speak)

‘Edict’,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단어 같습니다. 사실 C군도 20여 년 전에 공부하던 책에 있으므로 과거에 외우기는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영단어입니다. ‘Edict’는 명사이며 **‘포고, 명령, 지시’** 등의 뜻을 가집니다. 어원은 ‘out’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ex-’와 라틴어 ‘dicere(say, speak)’입니다. 어원을 그대로 풀어보면 ‘밖으로 이야기하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무언가 밖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포고, 명령, 지시’와도 어느 정도 심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원과 현재의 뜻이 자명하지는 않아서 영단어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원과의 연결고리조차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Dictate

어원 : 라틴어 dicere (say, speak)

‘Dictate’는 **‘~를 받아쓰게 하다, ~를 지시하다’**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동사입니다. 어원은 ‘dicere(say, speak)’로 ‘말하다’ 그 자체입니다. 어원이 ‘말하다’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기’와 관련한 수많은 뜻 중에 어떻게 ‘~를 받아쓰게 하다, ~를 지시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어원이 되는 라틴어 ‘dicere’가 유럽의 다른 언어로 어떻게 퍼져나가며 어떤 의미의 변화를 겪었는지 그 역사를 파헤쳐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C군은 그 역사를 파헤쳐보려 꽤 오랜 시간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있던 것은 ‘~를 받아쓰게 하다’는 1500년대 후반에, 그리고 ‘~를 지시하다’의 의미는 1600년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정도입니다. 물론 어원과 현재 ‘Dictate’의 뜻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단어들의 어원 보다는 그 연결이 느슨해 보임에도 어원풀이에 포함시킨 것은 단어가 세월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얻고, 또는 어떤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연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2017년, 독자 여러분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